장마철 목포항 뒤덮는 영산강 쓰레기 '무대책'

해수청 방지 요구에 농촌공사 "차단 불가능"

해마다 장마철이면 목포항내로 유입되는 쓰레기 때문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고민에 빠졌다.

수위(水位) 조절을 위해 영산호 배수갑문(排水閘門)을 열 때마다 목포항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흘러들어 수질 오염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목포항은 항로가 협소하고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9월 태풍 '매미' 내습 때는 수백t의 쓰레기가 일시에 항내로 들어와 소형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연근해 양식장과 인근 섬 주변이 오염됐었다.

목포해수청은 이 때문에 영산호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농촌공사 측에 영산강 하구둑에 '쓰레기 차단 시설물'(screen)을 설치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

농촌공사는 그러나 강한 수압(水壓)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밀려들 경우 하구둑에 미치는 위험 등을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구둑에는 현재 30m 길이의 수문 8개(240m)가 시설돼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배수갑문을 열 경우 유속이 빨라 쓰레기 차단 시설물이 수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용역이나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았으나 내부 검토결과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촌공사 측은 영산강 수위 조절을 위해 지난해 128회, 올 들어 26회 배수갑문을 열었다. 배수갑문은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수위 데이터와 상류지역 장성댐 등 방류에 맞춰 수시로 개방된다.

매년 장마철마다 목포항으로 밀려드는 쓰레기의 95%는 영산강에서 유입되고, 하우스 비닐·잡목·수초·생활쓰레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포해수청과 농촌공사는 영산강 내로 쓰레기가 흘러들지 않도록 나주·영암 등 영산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에 간벌 폐목과 쓰레기 투기·방치에 대해 집중 단속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을 뿐이다.

'목포 어민회' 관계자는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위해 기술용역을 실시, 대량의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지난 2002년 9월 태풍 '매미' 내습 당시 영산강에서 목포항내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 목포해수청은 배수갑문 앞에 쓰레기 수거망 등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농촌공사 측은 하구둑 붕괴 위험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폭우에 무너진 터널공사장 옹벽 60㎜가 넘는 폭우로 지난 1일 오후 8시20분 무너진 목포시 용해동 터널 공사장 옹벽. 공사기간 중 H빔으로 만든 임시 도로가 20m가량 붕괴, 차량 통행이 한때 차질을 빚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 기아車 근로자 등 2,570명 가짜 영수증 세금 21억 부정환급

광주지검, 자진신고 지켜본 뒤 형사처벌

기아자동차 등 광주지역 대기업 근로자 2천570여 명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근로자들은 복사기·스캐너를 동원하거나, 영수증 발행처의 인장까지 위조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등 2천570여 명이 2005~2006년 2년간 사찰 4곳으로부터 액면 금액 136억원의 가짜 영수증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21억원에 달한다.

이중 900여 명은 2년간 연속해서 세금을 포탈해왔으며, 14명은 아예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써왔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취득 방법은 ▲명단을 작성, 허위 영수증 일괄 구입 ▲기부금 영수증을 아예 위조한 것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연말정산 무렵 회사 내에 구성된 '조' '반' 등의 단위조직 대표가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뒤 특정 사찰을 찾아가 영수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컴퓨터·스캐너 이용, 영수증 복사 ▲사찰의 직인 위조해 영수증 제출 등의 각종 방법을 동원, 세금을 포탈해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개인별 포탈 세액은 최소 4만7천원에서 최고 290여만원에 달했다. 이 중 50만~100만원이 1천356명으로 가장 많고 ▲100만~150만원 548명 ▲50만원 이하 470명 ▲150만~200만원 188명 순이었다. 200만원 이상도 8명이나 됐다.

업체별로는 2년간 ▲기아차 3천236명 ▲금호타이어(주) 193명 ▲한국차량공업(주) 67명 ▲기아서비스센터(주) 10명 등이다.

검찰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사들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에 대한 1개월간의 자진 신고기간을 거쳐 원천징수 경과를 지켜본 뒤 형사처벌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준 광주지역 B사찰 남모(49) 주지 등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택·향교 돌며 문화재 절도

1명 구속·4명 수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광주·전남 등 전국의 고택과 향교 등을 돌며 고가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55)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오모씨 등 일당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1일 전북 고창군 인촌 김성수 선생의 생가에 담을 넘어들어가 고지도와 병풍 등을 훔치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김씨는 오래된 한옥 집이나 향교, 문중의 제실(祭室), 박물관 등을 돌며 고서(古書)·도자기·산수화·시화 등의 문화재 등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절도 대상에는 전북 민속자료인 김정희 선생 고택이나 전북 유형문화재인 광산 김씨 노산사 재실(齋室) 등 지방자치단체가 민속자료로 지정한 곳이 포함돼 있으며, 나주향교·고창향교·영광향교·남원민속박물관 등도 표적이 됐다. /연합뉴스

배차권 요구 공사 방해 덤프연대 6명 구속

순천경찰은 2일 "공사장 덤프 배차권을 달라"며 공사를 방해한 '광주·전남덤프연대' 순천지회장 정모(38·광양시 광양읍)씨 등 노조원 6명을 업무방해·폭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1일 순천시 서면 압곡리 전주~광양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차권을 나눠달라"고 주장하며, 같은 달 24일까지 공사장 입구를 차로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가거도 쾌속 여객선 회항 소동

2일 오전 9시35분께 목포항을 떠나 신안군 가거도로 향하던 346t급 쾌속선 '남해프린스호'가 중간 기착지인 도초도 부잔교에 접안하던 중 연료공급 장치에 고장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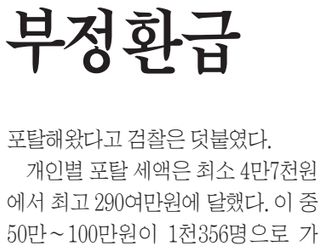
선원들은 배를 접안 시킨 채 1시간여 동안 자체 수리 작업을 했으나 고치지 못하자 오후 1시40분께 목포항으로 회항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64명 가운데 23명은 도초도에서 내렸으나, 가거도 등지로 향하던 41명은 목포로 돌아오는 불편을 겪었다.

선사인 '남해고속' 측은 발이 묶인 여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했다.

목포해경은 쾌속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나우찬

10대 폭주족 '주유소 습격' 사건

쌍나팔

○…울산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10대 폭주족의 '주유소 습격'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새벽 4시20분께 울산시 중구 성남동의 모 주유소에 10대로 보이는 오토바이 폭주족 10여 명이 집단으로 몰려와 주유원의 시선을 가로막고 기름을 몰래 넣은 뒤 도주.

○…이들은 먼저 2인1조의 한 팀을 주유소에 들여보내 주유원의 시선을 가로막은 뒤 이어 7~8대의 오토바이가 몰려가 주위를 빙빙 돌며 1대씩 주유기로 기름을 넣는 방법으로 3~4대의 오토바이에 2만5천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한 후 5분여 만에 유유히 달아났다는 것.

○…주유소 CCTV에는 교복을 입은 폭주족의 모습이 녹화됐는데, 이들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았다고. /연합뉴스